



(주)고산(1996년 제일공조부품(주)에서 상호변경)은 국내외에서 알아주는 자동차 및 가전기기 부품 생산업체다. 국내외 대형 공조기 업체들의 협력사인 이곳은 국내 5대 자동차 회사는 물론 해외 주요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용 Radiator, Condenser, Cooling module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또한 국내 2대 가전회사에는 에어컨 Condenser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1988년 설립이후 꾸준한 기술개발과 판로 개척을 해 온 이곳은 그간 성장에 성장을 거듭, 현재는 미국, 중국 등지에 8개의 법인을 가진 중견기업으로 우뚝 섰다. 실제 지난해 매출만도 1,455억원(해외법인 포함)에 달할 정도이다.

이처럼 업력 20년을 갓 넘긴 기업이 알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곳의 임직원들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일순위로 꼽는다.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건강한 근로자'라는 인프라가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 이런 우수한 환경이 조성된 데에는 안전, 환경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의 힘이 크다. 특히 그중에서도 일등공신은 팀을 이끌고 있는 장혁 팀장이라 할 수 있다.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1급 등 다양한 환경안전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는 전문가로서의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안전을 선두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안전을 통해 회사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주)고산 장혁 팀장

취재·사진 | 김성대 기자(gshu002@safety.or.kr)

### 사고 후 안전의 의미 깨달아

장혁 팀장은 입사 초기엔 총무와 전산업무를 맡았었다. 그때만 해도 장 팀장에게 안전은 그저 의미 없는 하나의 단어에 불과했었다. 그러던 중 2003년 겨울 전산장비를 옮기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척추를 다치는 사고를 입게 됐다. 이로 인해 그는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2번이나 받았으며, 2년이 넘게 요양을 했다.

이 사고는 그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불안정한 발걸음만으로도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이후 그의 행동은 180도 달라졌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의부터 살피는 습관이 생겼고, 위험요소나 행위는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꼼꼼한 성격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그의 술선수범적인 안전행동은 점차 사내로 퍼져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5년전 환경, 안전,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의 팀

장으로 발령받았다.

### 안전불감증을 경계하라

사업장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은 작업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근로자들은 안전을 의식하고 있다해도 어느새 이를 등한시하고 안전불감증에 빠져든다.

장혁 팀장은 이런 근로자들의 습성을 가장 우려한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마주치는 직원들 개개인에게 안전수칙과 공정별 작업표준절차 등을 반복해 알려주고 기본 준수를 강조한다. 잠시라도 잊었을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고취시켜주고자 하는 그만의 노력인 셈이다.

그의 이런 노력은 근로자들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순찰을 돌며 현장 책임자 및 생산관련 관리자들과도 꼭 미팅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아무리 급해도 무리한 작업계획을 짜지 않도록 당부를 한다.

무리한 작업계획이 근로자들을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고, 이는 결국 사고를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기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 모든 임직원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이곳의 다양한 안전활동 중 장혁 팀장이 가장 세세히 챙기는 것은 '일일 안전점검'이다. 장혁 팀장은 이 점검을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생활화된 점검으로 만들기 위해 그간 각고의 노력을 했다.

처음엔 장혁 팀장과 팀원들만이 점검에 나서던 것을 보다 많은 임직원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 지금은 공정별 관리직원을 대동하고 함께 사업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찾아 그는 주간단위로 사내그룹웨어에 공지 하고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임직원들이 안전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위험요소를 알림으로써 꼭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그는 사업장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 IDEA게시판도 운영해 모든 직원들이 공장 내 위험요소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 맞춤형 안전교육 펼칠 것

장혁 팀장의 향후 목표는 사내 안전교육의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는 회사의 한계 상 전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각 공정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전 직원이 참여하기가 힘이 드는데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듣다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혁 팀장은 각 개별 관리감독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이들이 각 공정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감독자들 모두의 안전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안전교육이 수시로 실시될 수 있게 되니 전반적으로 회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장 팀장은 기대하고 있다.

### 끊임없는 열정

장혁 팀장은 올해 전체 수석이라는 영예 속에 영진사이버대학의 10학번 새내기로 또 한 번 대학의 문을 찾았다. 보다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보고 싶은 욕심과 정년 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그는 사회복지계열을 선택했다. 늘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천상 안전관리자의 자질'을 타고 난 듯하다.

이처럼 다른 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 팀장의 열정이 전국 사업장 곳곳의 수많은 안전관리자들에게도 전해져 다시 한 번 의욕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